

OLED TV, 고가에도 잘 팔려...

LG전자, 1월 초 출시 후 200대 판매 ... LCD TV보다 2배 비싸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와 울트라HD(UHD: 초고해상도) TV 등 프리미엄 TV가 비싼 가격에도 비교적 많이 팔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LG전자는 1월 초 출시한 55인치 평면 OLED TV를 현재까지 국내시장에서 200대 가량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개월에 약 50대 가량 판매한 것으로 해석된다.

55인치 평면 OLED TV의 국내 출시가격은 1100만원으로, 400만~600만원선인 같은 크기의 LCD(Liquid Crystal Display) TV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관계자는 “1100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가격과 시장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량이 적지 않다”며 “2013년 하반기 해외시장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판매수량은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LG전자가 2012년 8월 말 출시한 84인치 울트라HD TV는 2500만원의 고가임에도 현재까지 국내에서만 450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1개월에 50~60대씩 판매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84인치 외에 65인치와 55인치 OLED TV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1월 중순 출시한 세계 최대인 85인치 울트라HD TV는 3월 말 77대의 예약판매 물량이 모두 소진됐으며, 현재 일반 판매로 전환한 상태이다. 85인치 울트라HD TV는 국내 판매가격이 4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중동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도 판매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29>